

## 수상한 청춘학교 김혜란 교장

9월 어느 날 한수, 덕산, 수산 3개면 곳곳 길목에 수상한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름하여 수상한 청춘학교. 충분히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명칭에 궁금증을 느끼며 들여다보니 '실버문화복합공간'이라는 수식어가 수상한 현수막의 내막을 설명해 주고 있었다. 아하~ 참 신선하게 다가온 네이밍이었다.

'수상한청춘학교'는 수자원공사가 지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 파란사회서비스센터가 운영하는 공익형 노인문화교육기관이다. 고령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지역에 딱 필요한 기관이 아닐 수 없다.

11월 초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청춘학교를 찾았다.

덕산면 순복음총회신학교 내 강당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두달간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한 이날도 교육공간에 필요한 테이블이며 의자 같은 집기들이 막 입고되어 짐들을 배치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런 혼란스런 와중에 잠깐의 짬을 내어 김혜란 청춘학교 교장을 만났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김혜란교장은 파란사회서비스센터 센터장이었다. 며칠사이 직함이 바뀌어 마주하게 되었다.

"센터가 청춘학교 운영주체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역할을 조정하게 되어 센터에서 학교로 이동하게 됐다"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마무리 되어 11월 중순 안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상기되어 있었다.

올 초 수자원공사는 수물지역주민들의 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버유치원'지원 사업을 공모하였고 덕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던 파란사회서비스센터는 기관의 경험을 살려 기획안을 작성 공모에 참여하게 된다. 뛰어난 기획안 덕분인지 많은 경쟁을 뚫고 유치에 성공한다. 이 기획안을 직접 짜고 준비한 사람이 김혜란 교장이다.

원래 김 교장은 이런 업종에서 일 해본 경험이 없다고 한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

하고 회사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다 경기도 안산에서 '공동육아'를 통해 공동체 경험을 쌓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10여년 근무하다 4년전 덕산으로 귀촌하여 요양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였다.

작년 초 같은 뜻을 가진 5명의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 파란사회서비스센터를 창립한다. 제천시에서 방문요양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체가 된 케이스는 처음이라고 한다.

파란사회서비스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남자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꾸려 소소한 집수리 봉사를 이끌었고 요양보호사들과 함께 반찬 배달 봉사, 간디공동체 청소년봉사동아리 "여깨동무"와 함께 '노인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선 해 나간다. 이런 일련의 활동들은 실버유치원 공모사업에 많은 가중치로 돌아왔다. 나아가 노인복지와 아동복지의 유사성이 실버유치원을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청춘학교는 종일반과 반일반으로 구분된다. 종일반은 70세 이상, 반일반은 65세 이상이 대상이다. 점심식사는 물론 오후 간식에서 수강료, 재료비 등 모든것이 전액 무료다. 종일반은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반일반은 10시부터 2시까지다. 심리상담센터 "마음산책"도 개설하여 우울, 불안, 외로움, 상실감 등으로 고생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들의 정서적 지원도 같이 할 예정이다.

현재 1기 모집 정원은 종일반, 반일반 모두 마감되어 정원을 채운 상태이며 내년 3월, 2기에 다시 모집 할 예정이다.

한수, 덕산, 수산의 65세 이상 현직 주민이 대상이며 상담전화는 043)644-0889번이다.



수상한 청춘학교의 내·외부 전경